

제1회 섬의 날 기념 목포서 '섬 페스티벌' 펼쳐진다

시, 8월 8~10일 삼학도 일원 개최...섬 가치 알리기 준비 만전
100만송이 백일홍 심고 조명타워 설치 등 대대적 환경 정비
세계 마당페스티벌·해상 퍼레이드·카약 체험 등 행사 다채

섬의 가치를 전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된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이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11일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조명타워 설치 등 대대적인 환경 정비>=대홍수산 옆 옛 해양경찰서 부지에 주차면수 45면의 임시주차장이 조성되고, 삼학도 주출입구 주차장(282면)도 라인도색과 펜스 설치 등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또 주 출입 주차장에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이르는 호안수로에는 난간길이 화분들이 설치되고 100만송이 백일홍을 심어 조만간 꽃을 피우면 이 일대가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광조선 벽면은 디자인 그물망으로, 성광조선 골목

은 벽화로 단장해 커버된다. 대삼학도 일우조선 일원은 난간에 대형 깃발을 설치해 차별 효과를 노린다.

또 하나의 걸림돌인 석탄부두 방진막도 이달 말까지 완전 철거된다.

야간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옛 해양부두 입구 자투리 땅에 25m 높이의 조명타워가 설치된다.

타워 등기구(LED1.2kW) 18개로 이뤄진 이 타워는 승하강식으로 1억62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시설은 섬의 날 행사 이후에도 계속 남겨두고 항구축제 때도 활용할 계획이다.

주 행사장 진출입로인 목포 요트마리나~봉황장레온화원에 이르는 1.4km 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행사장 입구에 5000만원을 들여 대형 꽃담이 설치되고 어린이바다과학관 앞과 요트마리나 앞 등 4곳에 테마화단이 조성된다.

<세계마당 페스티벌 등 다양한 예술·체험 행사>=남양항구 목포 버스킹과 함께 세계 6개국이 참가해 신나는 저글링·코믹마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옛 해양부두 전경. 목포시는 최근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메인무대와 전사행사를 위한 대형 텐트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주차장 옆 잔디가 심어진 공간에는 야간행사 진행을 위해 25m 높이의 조명타워가 설치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임·타악 퍼포먼스 등을 보여줄 '세계마당 페스티벌'이 열린다.

삼학도 메인무대 옆 해상에선 하이도로 플라야와 수상오토바이 프리스타일 묘기를 선보이는 '플라잉 워터 쇼'가 펼쳐진다. 평화광장 앞바다에선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참가해 리미티드, 노비스, 아마하 1100, 프로스키 등 수상오토바이 5개 종목에 대한 국제 파워보트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 날엔 삼학도 전면 해상서 5톤급 낚시어선 수십 척이 참여해 제1회 섬의 날 시작을 알리는 해상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섬 민속경연대회 일환으로 열리는 섬 주민 풍어제(만선 기원제)도 이목이 집중된다.

체험행사로는 삼학도 수로길에서 카누와 카약을 직접 타보는 기회가 마련되고, 삼학도 요트마리나에선 요트 3대가 동원돼 요트 마라톤-3합대-몽화도-목포대교 구간을 항해하는 요트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40분이며 하루 5회 운행된다.

대한제국 여권을 모티브로 제작한 리플릿에 스탬프를 획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개항문화거리 '목포 유람' 프로그램과 함께 손혜원 사건으로 핫 플레이스로 떠오

른 근대역사문화 체험 투어가 운영된다.

이밖에 서남해안권 박물관 프로그램 체험을 비롯해 육단이 길 투어, 육단이 의상 및 물지게 체험, 만인계 복권 추첨 등 크고 작은 체험행사가 개최된다.

이와 관련 김중식 목포시장은 "교통·환경·질서·청결 등 삼학도에 국한하지 말고 도심 전체가 행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 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면서 "다음달 3일 현장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지방공기업 평가 '나 등급'으로 한단계 상승

목포시가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으로 지난해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15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4-5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 89.45점으로 나 등급에 랭크됐다.

이번 평가는 5개 분야 9개 지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 60%와 정성평가 40%를 반영, 직영기업 경영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이 부여됐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도 내 평가대상 8개 직영공기업 가운데 순천시가 '가' 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목포시가 '나' 등급으로 2위를 차지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4년 '다'등급(86.44), 2015년 '나'등급(87.60)을 받았다가 2016년에 '리'등급(84.89)으로 최하위 권으로 추락했다. 이어 2017년 '다'등급(87.49)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엔 '나'등급(89.45)으로 전남도 2위를 차지해 5년간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고용청 노동질서 감독 최저임금 미준수 등 적발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용)은 2019년도 상반기 지역 9개 시·군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를 일제 감독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및 각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목포, 강진, 장흥, 신안, 진도, 해남, 완도, 영암, 무안 등 관내 기초노동질서 사전제도와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문 20개 취약 분야 중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주점·호프 등 이었다.

위반 사항은 41개소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급품 미지급(1629만5000원), 16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336만3000원), 5개소에서 퇴직금 미지급(580만3000원), 41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등이다.

전체 51개소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등 총 1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로 섬 타러 오세요...대학생 섬 서포터즈 홍보 시작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88명으로 구성된 '내일로 88 섬 서포터즈'단이 목포 외달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목포시 제공>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로 치러지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전국의 청년 88명이 나섰다.

다음달 8일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섬과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대학생 88명으로 구성된 '내일로 88 섬 서포터즈'는 앞으로 1개월간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개인 SNS에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의 섬 페스티벌 관련 정보와 섬 여행 정

보 등을 포스팅해 온라인상에 전파하는 홍보 전도사로 활동한다.

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SNS의 업데이트 정보를 링크하는 등 온라인 연계 홍보활동도 펼친다.

서포터즈단은 지난 9일 발대식 이후 외달도 팸 투어를 통해 맛이고, 놀이가고, 재미가 있는 섬 여행의 무한한 매력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아파트 숲에 울려 퍼진 '행복 콘서트'...주민들 "여름밤 선율 감동"

시립교향악단 음악회 호응

1200세대가 모여 사는 목포시 대성동 천년나무 아파트에 지난 12일 낯선 오케스트라 연주가 여름밤을 수놓았다.<사진>

집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반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나온 주부·노인·어린이들은 문화예술회관이나 TV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클래식 음악을 집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흥얼거리며 음악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날 시립교향악단 단원 21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Blue Sky and sunshine'과 'American Graphity 1' 곡으로 음악회 서막을 열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Avengers'가 연주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어 '내 나이가 어때서'와 '남친 그래피티' 등 낯익은 곡이 흘러나오자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양로곡으로 '목포의 눈물' 등 총 7곡이 아파트 숲속에 울려 퍼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무엇보다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곡목을 선택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다. 이날 300여명이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은 대다수가 서서 음악회를 감상했고, 특별한 음향장치는 없었지만 아파트 숲속에 자리한 광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훌륭한 앰프 역할을 했다.

40분 남짓 이어진 음악회 내내 주민들의 표정은 감격에 상기도 했다.

주민 이 모(63)씨는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시립교향악단의 음악을 감상한 건 처음"이라며 "너무 좋은 곡들이고 귀에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줘 감동적이었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연은 시립교향악단 5개 팀과 시립합창단 2개 팀 등 총 80명의 단원으로 7개 팀을 꾸려 18회 공연을 펼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공건물이 아닌 대단지 아파트를 찾아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8140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